

1. 왜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1) 과학기술연구는 정말 중립적인가?

: 과학기술 자체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중립적이다. -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ex. 오펜하이머, 평화의 댐 건설단 단장

반박 1: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현실화된다.’ (ex. 원자폭탄, 미국의 총기규제 반대)

반박 2: 과학기술은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하다. (ex. 평화의 댐, 황우석 사태)

2)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 현대 기술은 결과가 ‘예측불가능’하다.(요나스)

현대 과학기술의 대형화와 시공간적 범위 확장으로 인해 좋은 의도로 개발한 과학기술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과학기술의 장기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런 자각에서 출발.

3) 현대 과학기술의 위력

: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현대의 과학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4) 그들만이 안다: 과학기술인의 독점적 지위

: 과거 어느 때보다 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일상적 삶이 완전하게 매달려 있는 상황. (ex. 평화의 댐 사건, 의사들의 범죄)

5)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

: 대부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가나 거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연구의 자율성이 약화되었지만 반대로 과학기술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됨.

2.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이유는?

1) 개념의 모호성

: 다양한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 (ex. 삶의 질, 복지)

2) 피고용인으로서의 과학기술인

: 대다수 피고용인의 입장이며, 연구개발도 분업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로 인해, 자신의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려는 자세를 가지기가 힘들다.

3) 극심한 경쟁

: 살벌한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과 국가간 치열한 다툼 속에서 과학기술인은 경쟁을 강요받고

과학기술인들 자신도 일정한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단기적인 성취에 집착하기 쉽다.

ex. 황우석 사태의 국익 논쟁, 원자력 도입에 대한 국익 논쟁

3.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방안 3가지

1) 과학기술인은 다양한 교육과 개인적 성장을 통해 과학기술과 현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a. 윤리적 주체로서의 과학기술인

: 자기가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

b. 개별 연구 개발의 맥락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기술발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c. 과학기술의 간접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좋은 세상에 대한 숙고

2)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들

a. 의무의 상충과 내부 고발자 보호 ex) 기관연구윤리위원회, 옴부즈맨 제도

b. 강력한 과학기술인 전문직 단체

: 과학기술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과학기술인의 독립성과 도덕적 우위를 지켜줄 수 있다.

c. 윤리적 의무와 책임의 차등적 부여

: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러한 책임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ex. 이론 < 응용, 연구원 < 연구 책임자

3)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현대 사회의 맹목적인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일반인들도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한다.

왜?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과학기술인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일반인 모두 과학기술의 적절한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끝. ** 한 학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